

# “형상 너머의 세계 화폭으로”

정산 스님 · 김명규 2인전 ‘무념을 위한 상념’ 전

정산 스님 · 김명규 작가가 함께 펼치는 ‘무념을 위한 상념’전이 6월 2일까지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정산 스님의 ‘불립문자’ 시리즈 · 김명규 작가의 ‘하늘’ ‘공간’ 등의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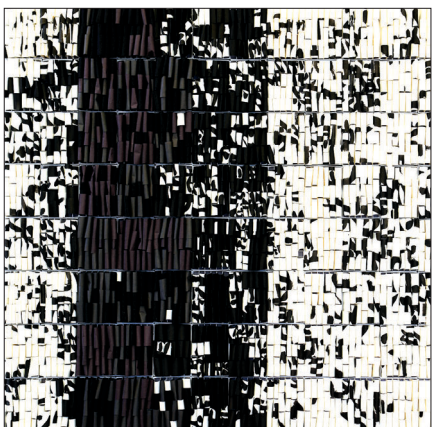
김명규 작가는 “이번 나의 작품은 무한 세계를 동경하며 구체화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작품속의 섬들은 먹의 번짐으로 이루고 그 세계는 중력을 잃어버린 영역으로 표현했으며 하늘은 이온이 사라져버렸고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색은 없어져 모든 형태의 진실은 하나의 기억으로 또는 변형된 어떤 것으로 재조립 됐다”고 설명한다.

이 땅 위의 형상은 유한한 형태에, 이 세계는 잠깐의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김명규 작가. 그래서 그는 현실을 재해석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꿈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의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완전한 이미지를

다시 탄생시킬 일도 먼일은 아니기에 초조하지 않다.

정산 스님은 신작 ‘불립문자(不立文字)’ 시리즈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소통에 관한 해석’을 시각화한다. 요컨대 소통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말(혹은 문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의 상징인 문자(文字)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산 스님은 “한지에 먹으로 붓글씨를 쓴 다음, 그 종이를 여러 번 자르고, 다시 그 작은 조각들로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는 우리가 글자에 의존해 소통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을 이루려면 글자의 형식적인 면 그 너머의 원성(原性)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정산 스님의 '불립문자'



김명규 작가의 'One day on dream'

# 명나라 희귀 목판화 ‘수성노인도’ 공개

고판화 박물관 ‘아시아 도교판화의 세계’ 전

동양의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 쉬는 한 종일, 티베트의 도교 판화 100여점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10월 12일까지 ‘영원 불멸의 길-아시아 도교 판화의 세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고판화 박물관은 세계적인 희귀 목판화인 ‘수성노인도’ (명나라) 등을 공개해 주목된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각국에서 도교 문화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아가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필적할 만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고서인 한국의 <옥주보경>이나 중국의 회본 <신선전>, 일본의 <열선전전> 등이 소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명 용경 임신년(1572) 작품인 대형 ‘수성노인도’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화로 고판화박



명나라 목판화 '수성노인도'

물관이 올 해 발굴 수집해 공개하는 작품이다. 청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육필 도교 제신 대형 연화도 공개한다.

이밖에도 유불선 삼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판화국제 학술대회, 아시아 전통판화 장인들의 시연회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 불국토 꿈꾸던 신라인 숨결 모았다

국박, 통일신라실 개편 상설전시

8세기경 조성되었다는 철불은 그 온화한 미소가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오랜 시간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비와 광명의 물결이 가슴의 평온함으로 밀려들어 벅찬 감동을 만든다. 그것은 불국토의 절정에 다다른 한 시대의 문화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음의 순간을 재현하는 듯 경이롭기만 하다. 前 보원사 철불을 비롯한 사리호, 익산 미륵사지 출토 향로 등 통일신라의 화려했던 불교문화가 되살아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5월 20일부터 선사고대관 통일신라실을 새롭게 단장, 상설전시로 일반 관람객들을 찾아가는다.

통일신라실은 불국토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이상과 화려한 귀족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 중에서도 보원사 철불은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에 출품되어 호평 받은 바 있으며, 석굴암 본존불과 함께 통일신라 불교 조각품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19일 언론 공개회를 갖고 중요 유물을 설명하고 이번 전시의 특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원사 철불은 여초의 작품이라는 설도 많았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연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임이 증명되었다. 이 작품은 철불로서는 드물게 완벽한 비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식사적으로는 석굴암 본존불을 따라가고 있기에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배치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철불 배치는 통일신라 불국토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표현, 일주문을 통과해 사찰로 들어가는 길을 연상케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 입구를 사천왕, 보원사 철불, 경주 출토 팔부중앙 손으로 배치 일주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선사고대관 통일신라실을 새롭게 단장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사진은 5월 19일 언론 공개회 장면.



통일신라실 절반의 공간을 확보해 전시하는 보원사 철불은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렸던 '황금의 나라, 신라' 전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향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서 호평 받았던 '보원사 철불' 등 통일신라 중대대 역사 한눈에

서부터 사찰 안을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중대대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불교를 토대로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정당성을 과시하며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간 통일신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전시 후반부는 통일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안압지나 왕경

출토 유물을 통해 당시 수준 높은 귀족의 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다. 또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와 황해도 평산 출토품 등 통일신라시대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 고급문화를 누렸던 지방 사회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시간적으로 신라 중대과 하대, 공간적으로 중앙 귀족 문화와 지방 사회 문화를 비교하는 점에서 그간의 통일신라 전시와는 다른 기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 경주 인용사터 출토 광명대(龕대), 미륵사터 출토 향로, 군위 인가사 출토 도자기, 창녕 말흘리 출토 향로 등 최근 발굴되어 학계에서 중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새로운 유물들이 전시됐

다. 은으로 만든 작은 그릇 바깥에 쌍조문(雙鳥文)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사리호는 이번에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유물이다. 이런 새로운 자료는 박물관을 찾는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는 유물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을 관람객이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유물 돋보기를 설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관람객이 쉽고 편하게 유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입체적 전시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과 색채적 요소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고졸한 미소의 불상 감상하세요”

춘천박물관 테마전... '부처와 나한의 미소'

국립춘천박물관이 테마전 '부처와 나한의 미소'전을 올연말까지 개최한다. 미소를 띤 친숙한 불교 조각상은 전시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아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영월 창령사 절터에서 발굴된 나한상

수명을 무한히 늘려주며, 그 명호를 부르면 극락세계로 인도해준다는 아미타불.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석상으로 조성된 아미타불이 선보인다. 또한 영월 창령사 절터에서 발굴된 나한들의 꾸밈없이 담담한 표정과 미소에서는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양 입가를 살짝 눌러놓은 듯한 예스럽고 소박한 미소를 미학적으로 '고졸(古拙)한 미소(Archaic Smile)'라 부른다. 삼국시대 이래로 이러한 미소는 고려, 조선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엄숙한 얼굴 위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새겨 놓은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학으로 마음을 달래던 한국인의 심성이 반영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세운 작가의 '소나무' 사진도 전시된다.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불교 조각상들의 평안한 미소가 관람객들에게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033)260-1523 정혜숙 기자

**중국농산 유향오리,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유향오리 다슬기엑기스**

스티커를 꼭!!! 확인하세요.

보리밥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향과 함께 배합하여 먹어 키운 유향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중국농산 - 판매처: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지리산자락의 헛개줄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저함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계 · 열반송 · 선문담 통해 참마음 깨닫기**

**재불조사의 선사,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사와 선문담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종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종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볼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s@daum.net